

신민회의 결성 시점에 대한 재고찰

李先敏*

- | | |
|---|------------------------------------|
| I. 머리말 | III. 신민회 결성에 1년이 걸린 이유 |
| II. '1907년 4월 說'의 문제점과 '1908년 초' 결성의 근거 | IV. '1906년 상동파 신민회' 說 검토
V. 맺음말 |

• 국문초록

대한제국 후기에 활동한 신민회는 한국 근대민족운동에 큰 영향을 미쳤음에도 비밀결사였기 때문에 전모가 베일에 싸여 있다. 특히 결성 시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주장이 엇갈리지만 이에 대해 본격적인 검토와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논문은 통설로 여겨지는 '1907년 4월 결성' 說이 근거가 매우 취약함을 지적했다. 그리고 신민회 결성을 주도한 안창호와 그 과정을 지켜본 최측근 이강의 증언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신민회가 1908년 초에 만들어졌음을 드러냈다.

신민회가 1907년 2월 안창호가 관련 문건을 갖고 귀국한 이후에도 1년이 지나서야 결성된 것은 그와 국내 민족운동가들의 정치의식이 차이가 났기 때문이었다. 안창호와 그의 배후세력인 미주 공립협회가 한국의 維新을 주장하며 국민주권론을 내세운 것과 달리 국내 민족운동가들은 입헌군주제를 통한 군주권의 제한을 지향했다. 이런 간극이 1907년 7월 고종이 강제양위된 뒤에 좁혀지고 나서 신민회 결성이 본궤도에 오를 수 있었다.

이 논문은 또 안창호의 귀국 이전인 1906년 무렵에 상동교회를 중심으로 활동한 상동파가 먼저 신민회를 결성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그 조직과 신민회의 성격이 달랐음을 밝혔다. 상동파가 만든 조직은 전통적인 애국 사상에 기반을 둔 救國 운동

*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박사과정 수료

단체였는데 비해 신민회는 한국 사회의 유신을 지향하는 개혁 운동 단체의 성격이 강했다.

주제어 : 신민회, 안창호, 維新, 국민주권, 상동파

I. 머리말

신민회는 한반도가 일본의 군사적 강점 상태에 들어가고 이어서 보호통치 아래 놓이게 된 대한제국 후기에 활동한 대표적인 민족운동단체였다. 1907년 2월 미국에서 돌아온 안창호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신민회는 교육·실업·출판·청년 등의 활동을 통해 민족의식을 고취하고 실력을 양성하는 데 힘썼다. 그리고 1909년 10월 안중근의 하얼빈 의거 이후 민족운동에 대한 일본의 탄압이 본격화되자 주요 간부들이 대거 연해주와 만주로 망명하여 독립운동에 뛰어들었다. 수백 명¹⁾에 이르렀던 신민회 회원은 1910년대에 국내외의 민족운동을 이끌었고, 3·1운동과 그 결과로 수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에서도 큰 역할을 했다.

하지만 신민회는 비밀결사였기 때문에 그 조직과 활동의 많은 부분이 여전히 베일에 싸여 있다. 관련된 각종 문건의 원본이 전해지지 않을 뿐 아니라 발족 배경이나 과정, 시기에 대해서도 아직 확립된 정설이 없다. 특히 신민회의 결성 시점은 역사적 사실을 밝히는 차원뿐 아니라 신민회의 성격 규정과 한국 근대민족운동사에서의 위상 부여에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이런 가운데 신민회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는 인사들이 각자 입장에서 하는 증언이 엇갈리는 상황이어서 혼란을 더한다.

이 논문은 신민회의 결성 시점과 관련한 쟁점들을 이제까지 연구에 이용된 자료를 면밀하게 점검하고 새로운 자료를 활용하여 재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신민회의 결성 시점과 관련하여 통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1907년 4월’ 說의 문제점을 짚어본다. 이어 안창호와 이강 등 신민회 결성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인물들의 증언을 중심으로 신민회가 ‘1908년 초’에 만들어졌음을 보여줄 것이다. 그리고 1907년 2월 미국에서 돌아올 때 신민회 취지서와 규약을 갖고 온 안창호가 신민회를 만드는데 1년 가까운 시간이 걸린 이유를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안창호의 귀국 이전

1) 신민회 회원이었던 김구는 “(안창호가) 400명 정수분자로 조직된 단체, 즉 신민회를 훈련·지도했다”라고 했다. 김구 저, 도진순 주해, 『백범일지』, 돌베개, 2003, 215면. 박은식은 “신민회는 안창호가 처음 만든 것으로 뜻이 돈독한 사람만을 엄격히 선발하여 조직이 치밀하고 정신이 확고하였다. 그 회원은 8백여 명에 이르렀다”라고 했다. 박은식 저, 김도형 역, 『한국독립운동지혈사』, 소명출판, 2008, 100면.

인 1906년 무렵에 상동교회에 이미 신민회가 만들어져 활동하고 있었다는 일부 개신교 교회사학자들의 주장이 타당한지를 따져본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신민회의 성격 규정이다. 신민회는 보통 ‘국권 회복을 위한 비밀결사’(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항일 비밀결사’(두산백과)로 이해된다. 하지만 신민회와 관련된 문건이나 실제 활동을 보면 신민회는 침체된 당시 한국 사회에 새 바람을 불어넣어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개혁운동 단체의 성격이 매우 강했다. 적어도 결성 초기만 놓고 보면 ‘국권 회복’보다 ‘개혁’의 측면이 더욱 두드러졌다고 볼 수 있다. 대한제국 후기는 ‘개혁’과 ‘국권 회복’의 양대 과제가 동시에 제기된 시기였다. 신민회의 양면 가운데 ‘개혁’의 측면을 도외시하고 ‘국권 회복’의 측면에만 초점을 맞추어서는 그 결성 과정과 성격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논문은 신민회의 개혁운동 단체로서의 성격에 관심을 기울이려고 한다.

II. ‘1907년 4월’ 說의 문제점과 ‘1908년 초’ 결성의 근거

신민회의 결성 시기에 대해서는 1906년,²⁾ 1907년 2월,³⁾ 1907년 4월,⁴⁾ 1907년 후반,⁵⁾ 1907년 말 또는 1908년 초⁶⁾ 등 여러 학설이 있다. 그리고 심지어 신민회가

-
- 2) 이재순, 「한말 신민회에 관한 연구」, 『이대사원』 14, 이화여자대학교 사학회, 1977, 7면.
 3) 姜在彦, 「新民會の活動と百五人事件」, 『朝鮮の開化思想』, 岩波書店, 1980 (강재언, 『한국의 개화사상』, 비봉출판사, 1981, 373면). 강재언은 1911년 ‘데라우치 총독 암살 미수 사건’을 날조하여 105인 사건으로 만들어낸 일본인 경찰 쿠니토모(國友尙兼)의 「不逞事件=依シテ觀タル朝鮮人」의 기술을 따랐다.
 4) 신용하, 「신민회의 창건과 그 국권회복운동(상)」, 『한국학보』 8, 일지사, 1977, 40~43면.
 5) Arthur L. Gardner, 「The Korean Nationalist Movement and AN CH'ANG-HO, Advocate of Gradualism」, University of Hawaii Ph.D. Dissertation, 1979. Gardner는 헤이그 특사 사건의 여파로 고종의 강제양위, 정미7조약 체결, 군대해산 등 일본의 한국 장악이 강화되는 상황 변화를 보고 안창호가 신민회를 만들었다고 썼다. 하지만 뚜렷한 자료적인 근거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6) 김도훈은 1932년 윤봉길 의거 뒤 상해에서 체포돼 국내로 압송된 안창호가 일제의 신문에서 “귀국한 다음 해에 신민회를 조직했다.”라고 말한 점, 신민회 창립에 참여한 이동휘가 1907년 8월부터 12월 초까지 일본 헌병대에 구금돼 있었던 점 등을 들어 신민회 발족이 1908년 1월 초라고 보았다. 김도훈, 「공립협회(1905~1909)의 민족운동 연구」, 『한국민족운동사연구』 4, 한국민족운동사학회,

단지 몇 명 회원밖에 얻을 수 없는 단계에서 성립되었는지 아닌지조차 모르는 조직으로 끝나버렸다⁷⁾는 주장도 나왔다. 그리고 이 가운데 ‘1907년 4월’ 설이 통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많은 한국사 개설서와 백과사전 등이 그렇게 서술했다.⁸⁾

신용하가 ‘1907년 4월’ 설의 근거로 제시한 것은 다음의 다섯 가지이다. 첫째, 『李儒先生傳』에 따르면 이준이 헤이그 특사로 선발돼 1907년 4월 20일 서울을 출발하기 전에 안창호로부터 신민회 가입을 요청받았다는 것이다. 『李儒先生傳』은 이준이 안창호에게 자신의 뒤를 이어 ‘救國濟民을 위한 維新派의 비밀결사’를 만들도록 당부하여 신민회가 만들어졌고, 이준·이상재·베델·헬버트가 신민회의 고문을 맡은 것으로 썼다.⁹⁾ 하지만 이준의 사위인 유자후가 광복 후에 펴낸 이 책은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많아 사료로서 문제가 크다는 점이 이미 면밀한 검토를 통해 밝혀졌다.¹⁰⁾ 신민회 관련 부분도 안창호가 귀국하기 전인 병오년(1906년) 봄에 이준과 만난 것으로 돼 있는 등 오류가 많다. 신용하도 “이 기록에는 과장과 부정확함이

1989, 25~26면. 반병률은 이동휘가 세상을 떠난 후 발간된 「리동휘 동무의 일생」(『선봉』 1935년 2월 4일)에 이동휘가 석방된 직후 신민회가 조직됐다고 한 점에 주목했다. 반병률, 『성재 이동휘 일대기』, 범우사, 1998, 67면. 한규무도 안창호의 일제 신문 진술을 토대로 ‘1908년’ 설을 주장했다. 한규무, 「신민회의 역할과 역사적 의의」, 『신민회의 창립과 역할에 관한 재조명』 학술회의 발표문, 우당이회영기념사업회·협성대학교, 2011, 65면. 윤경로는 「신민회의 창립과정」(『史叢』 30, 고려대학교 사학회, 1986, 229면)에서 ‘1907년 4월’ 설을 받아들였다가 『105인 사건과 신민회 연구』 개정증보판(한성대학교 출판부, 2012, 307면)에서 임치정이 귀국한 다음인 ‘1907년 10월 이후에서 1908년 1월 어간’에 신민회가 만들어졌다고 입장을 수정했다.

- 7) 기노시타 다카오(木下隆男), 「105인 사건과 청년학우회 연구」, 송실대 박사학위논문, 2011, 139~140면. 하지만 이런 주장은 105인 사건 관련자들이 공판투쟁의 차원에서 한 발언까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양기탁·임치정·이승훈 등 신민회 핵심 관계자들이 일본 경찰의 조사 과정이나 법정에서 한 발언은 사실과 다른 것이 적지 않다. 따라서 105인 사건 관련자들의 발언을 모두 그대로 신민회 연구에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 8) 한영우가 쓴 『다시찾는 우리역사』(경세원, 2003)는 “한말의 정치·사회단체 중에서 끝까지 친일을 거부하면서 실력양성의 실효를 거둔 것은 신민회(1907.4)였다.”라고 썼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이 만든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신민회의 설립 일시를 ‘1907년 4월’이라고 했다. 한편 이기백이 쓴 『한국사신론』(일조각, 1993)은 “통감부의 감시 속에서 정치사회운동이 많은 제약을 받게 되자 드디어 비밀단체를 조직하기에 이르렀다. 광무 11년(1907)에 조직된 신민회가 그러하였다.”라고 하여 설립 시점을 月까지 명시하지는 않았다.
- 9) 유자후, 『李儒先生傳』, 동방문화사, 1947, 185~192면.
- 10) 정승교, 「이준의 행적 및 고종 황제의 특사로 발탁된 배경」, 『백 년 후 만나는 헤이그 특사』, 태학사, 2008.

있으나 이 부분은 사실로 보인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볼 수 있는 근거를 밝히지는 않았다.

둘째, 샌프란시스코의 한인 공립협회 회장 송석준이 세상을 떠나자 1907년 6월 10일 서울에서 추도회가 열렸을 때 안창호와 함께 전덕기가 준비를 맡았던 점이다. 신용하는 안창호와 전덕기가 안창호 귀국 전에 친분이 두텁지 않았고, 전덕기는 송석준을 몰랐기 때문에 이 일이 신민회 창건 이후라고 추론했다. 하지만 이 추도회는 ‘외국에서 風霜을 겪으면서도 본국 동포를 血誠救濟한’¹¹⁾ 송석준을 위해서 공립협회 초대 회장인 안창호가 중심이 돼 ‘內國社會의 대표되는 僉君子’들과 함께 개최한 것으로 당시 대표적인 민족교회였던 상동교회의 담임목사 전덕기 외에도 장지연(대한자강회 평의원) · 정운복(서우학회 회장) · 오상규(한북흥학회 회장)¹²⁾ · 김상천(황성신문 사장)¹³⁾ · 김린(황성기독교청년회 부총무)¹⁴⁾이 발기인을 맡았다.¹⁵⁾ 이들은 당시 한국 사회 각 방면의 지도자로 모두 신민회와는 무관하다. 따라서 이 추도회를 신민회 창건과 연결시키는 것은 무리이다.

셋째, 신민회의 창건위원 가운데 대한자강회의 핵심 간부가 빠져 있는 점이 신민회가 1907년 8월 대한자강회가 해체되기 전에 만들어졌다는 방증이라는 것이다. 당시 대한자강회가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간부들이 신민회에 들어오지 않았으며, 만일 대한자강회가 해산된 뒤에 신민회가 만들어졌다면 당연히 그 간부의 일부가 창건위원이 됐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뒤에 살펴보는 것처럼 안창호는 대한자강회와 그 후신인 대한협회를 그렇게 높이 평가하지 않았다. 따라서 대한자강회와 신민회를 전국 규모에서 애국계몽운동을 전개한 합법단체와 비밀결사의 관계로 파악하는 것¹⁶⁾은 사실과 거리가 있다.

11) 대한매일신보, 1907년 6월 7일, 잡보 「此何噩報」.

12) 장유승, 「19세기 지식인의 정체성 변화와 그 배경-槐庭 吳相奎의 생평과 근대문명 인식-」, 『고전문학연구』 41, 한국고전문학회, 2012, 458면.

13) 안중묵, 「황성신문 발행인의 정치사회 사상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46(4), 한국언론학회, 2002, 231~232면.

14) 박혜미, 「일본조합교회 간사 김린의 생애와 친일활동」, 『한국기독교와 역사』 51,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19, 49~50면.

15) 대한매일신보, 1907년 6월 8일 잡보 「宋氏追悼會」 및 광고.

16) 신용하, 「신민회의 독립군기지 창건 운동」, 『한국문화』 4, 서울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1983, 70면.

넷째, 신민회의 창건위원인 이동휘가 1907년 8월부터 12월 초까지 일본 헌병대에 구금돼 있었기 때문에 신민회 창건은 1907년 8월 이전이라고 했다. 고종의 강제 양위와 군대해산 이후 강화도에서 일어난 봉기와 관련하여 체포됐던 이동휘는 1907년 11월 안창호가 이토 히로부미에게 석방을 요청한 뒤에 풀려났다. 신민회는 그 뒤에 만들어졌다고도 볼 수 있고, 뒤에 살펴보듯이 이것이 사실과 부합된다.

다섯째, 1911년 발생한 ‘105인 사건’ 때 일본 경찰에 체포된 사람 가운데 정원범이 1907년 4월에 최광옥의 권유로 신민회에 가입했다고 진술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원범은 일본 경찰 조사 때 1909년 4월에 가입했다고 말했는데 담당자가 1907년이 아니면 맞지 않는다고 마음대로 바꾸었다고 공판에서 진술했다.¹⁷⁾

이상의 내용을 종합할 때 신민회의 결성 시점과 관련해 ‘1907년 4월’ 설은 근거가 매우 취약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신민회는 언제 만들어졌는가?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신민회와의 관련이 분명하지 않은 인사들이 쓴 2차 자료나 추론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신민회 결성에 직접 참여한 사람들이 남긴 기록을 포함한 1차 자료를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 가장 중시해야 할 것은 신민회의 발의자인 안창호의 진술이다. 그는 1932년 윤봉길 의거 때 상해에서 체포돼 국내에 압송된 뒤에 일본 당국의 신문에서 신민회 결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다.

① **귀국해 보니** 정해진 國是도 없고 지도기관으로서 自強會라는 단체가 있었지만, 이곳도 한인 지도의 임무를 맡고 있지 않았다.

② 자강회는 쇠퇴하기 시작했고, 그 후에 대한협회라는 단체가 조직되었다.

귀국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자강회의 남궁억, 천도교의 권동진·오세창, 그 밖에 김가진·윤효정 등이 자강회와 같은 목적으로 조직했다. 특별히 이렇다 할 활동은 없었고, 기관지로 대한신문을 발간했다.

③ **귀국한 다음 해에** 조선민족의 자립자존의 정신을 보급할 목적으로 경성에서 이갑·유동열·이동휘·전덕기·이동녕·양기탁 등과 함께 (신민회를) 조직했다.¹⁸⁾ (강조는 인용자)

17) 윤경로, 앞의 책, 196면.

18) 「제1회 안창호 신문조사」(1932년 9월 5일), 『조선사상운동조사자료』, 조선총독부재판소, 1932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정보시스템 <<https://search.i815.or.kr>> 검색). 앞의 주 7)에서도 지적했

이 신문조서의 내용 가운데 ③은 그동안 김도훈과 한규무 등이 연구에서 언급했다. 하지만 ①과 ②에 주목한 연구자는 없었다. 그런데 차례대로 진술한 ①~③을 연결해 보면 안창호가 귀국 후 대한자강회 활동과 해산, 그 후신인 대한협회 발족을 지켜보고 나서 그 다음 해에 신민회를 조직한 것을 알 수 있다. 당시 대표적인 민족운동단체였던 대한자강회(1906년 4월 결성)가 민족을 지도하는 임무를 제대로 하지 못했고, 자강회가 해산(1907년 8월)된 뒤에는 그 세력을 중심으로 다시 대한협회가 발족(1907년 11월)했지만 특별한 활동이 없었기 때문에 신민회를 결성했다는 것이다.¹⁹⁾ 1902년 미국으로 유학차 건너갔던 안창호가 한국에 돌아온 것은 1907년 2월이었다. 따라서 그가 말하는 ‘귀국한 다음 해’는 1908년이다.²⁰⁾

둘째, 안창호의 최측근으로 1904~1911년 그의 곁에서 민족운동을 함께 했던 이강의 증언이다. 안창호와 동갑이고 동향(평안남도)인 이강은 일찍부터 서로 아는 사이였다. 1903년 4월 첫 번째 하와이 노동이민에 참가한 이강은 1년의 계약 기간이 끝나자 미국 본토로 건너갔다.²¹⁾ 1904년 4월 미국 로스엔젤레스 부근의 작은 도시 리버사이드에서 다시 만난 두 사람은 이후 공립협회·국민회·대한민국민회로 이어지는 재미 한인의 민족운동을 주도했다.²²⁾

듯이 민족운동가에 대한 경찰·검찰의 신문조서나 법정 진술은 자신이나 관련자를 보호하기 위한 공판투쟁의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그 내용은 조심스럽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105인 사건’ 때 체포된 인사들이나 하얼빈 의거 직후 안중근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안창호의 신문조서 가운데 이 부분은 그가 체포·압송된 이유와 아무런 관련이 없고, 25년 전의 사실에 대한 진술이라는 점에서 그대로 믿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된다.

- 19) 신민회 결성이 대한협회 발족 이후라는 사실은 이동휘 관련 자료에서도 확인된다. 1935년 1월 이동휘가 세상을 떠났을 때 소련 연해주공산당위원회 기관지 『선봉』은 訃告 기사에서 그가 출옥한 뒤에 “당시 가장 열렬한 신진애국자들과 함께 비밀결사 신민회를 결성했다”며 “대한자강회 또는 대한협회 같은 표면단체로는 조선의 혁명운동을 옹기 진행할 수 없으며 이런 단체들의 배후에 일본제국주의자의 대리인들이 숨어있는 것을 발견한 까닭”이라고 썼다. 「리동휘 동무의 일생」, 『선봉』, 1935년 2월 4일.
- 20) 그런데 안창호는 이 신문조서에서 자신이 귀국한 해를 ‘明治 39년(1906년) 초’라고 두 번 말했다. 이에 따르면 신민회 결성 시기는 1907년이 된다. 하지만 이는 안창호가 일본 年號에 익숙하지 않았던 데서 나온 착오로 보인다.
- 21) 이강은 자신이 하와이로 간 것은 안창호를 만나기 위해서였다고 훗날 밝혔다. 이강, 「나의 망명생활 50년記」, 『真相』 1958년 5월호, 신문의신문사, 24면.
- 22) 김도훈, 「안창호와 이강」, 『도산학연구』 10, 도산학회, 2004 참조.

이강은 신민회 결성에도 깊이 관련돼 있다. 안창호는 한국에 돌아오기 직전인 1907년 1월 8일 리버사이드에서 이강·임준기와 함께 ‘대한신민회(New Korea Society)’를 발의했다.²³⁾ 안창호가 귀국하면서 갖고 온 ‘대한신민회 취지서’와 규약인 ‘通用章程’은 이때 만든 것이다.²⁴⁾ 신민회의 취지서와 규약은 보통 안창호가 쓴 것으로 간주된다. 하지만 안창호가 ‘글의 사람’이 아니라 ‘말의 사람’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문필력이 있는²⁵⁾ 이강이 썼을 가능성이 있다.

이강은 안창호의 뒤를 이어서 1907년 10월 귀국했고, 이후 두 사람은 행동을 함께했다. 신민회를 결성하는 자리에도 있었던²⁶⁾ 이강은 안창호가 신민회 결성을 최종 결심하게 된 과정을 다음과 같이 적었다.

도산은 이토와의 면담에서 目下の 무의미하고 無效한 여러 사태를 깨달았다. 이토와 협력하여 그를 이용하려는 것은 곧 그의 주머니 속에 들어가려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도산은 미국에서 품고 온 계획대로 실행하기로 결의하였다.²⁷⁾

안창호가 귀국 이후 서울과 평양을 오가며 강연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다가 통감 이토 히로부미의 초청을 받아서 몇 시간 동안 대화를 나눈 것은 1907년 11월 27일이었다. 1907년 7월 정미7조약으로 사실상 한국의 통치자가 된 이토 통감이

23) 주요한, 「전기편」, 『증보판 안도산전서』, 홍사단출판부, 1999, 81면. 이강은 세 사람이 발의한 조직의 이름이 ‘新高麗會’였다고 증언했다. 박현환 편, 「도산 언행 拾遺·해운대 좌담 기록」, 『속편 도산 안창호』, 삼협문화사, 1954, 134면.

24) 비밀결사였던 신민회의 문건은 전해지지 않는다. 다만 1909년 3월 일본 통감부 헌병대가 이 문건을 입수하여 상당 부분을 일본어로 번역하여 보고한 것이 있어 그 내용을 대강 파악할 수 있다. 『통감부문서』 6권, 1909년 3월 5일, 憲機 제501호, 「대한신민회 취지서 및 통용장정 등 보고件」, 국사편찬위원회, 1999.

25) 이강은 공립협회의 기관지인 공립신보에서 필명을 날렸고, 연해주로 파견된 뒤에는 해조신문 기사를 거쳐 대동공보의 주필대리가 됐다. 박환, 「구한말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간행된 민족지: 『大東共報』, 『한국학보』 73, 일지사, 1993, 119면.

26) 이강은 훗날 “말기인으로는 전덕기·이동녕·조성환·임치정·양기탁·이강 등 몇 분이 모여서 했습니다. 이것은 물론 비밀결사였지요. 규칙을 만들 때도 전부가 不言贊으로 그냥 옳소 옳소로 되었습시다”라고 말했다. 박현환 편, 앞의 책, 134~135면.

27) 이강, 「홍사단과 도산 안창호」, 『신태양』 1957년 11월호, 신태양사, 165면.

서른이 채 안 된 한국의 신진 민족운동가를 초청한 것은 큰 화제가 됐다.²⁸⁾ 안창호와 이토의 면담 경과를 지켜보았던 이강은 안창호가 미국에서 자신과 함께 준비했던 신민회를 국내에서 조직하기로 마음을 굳힌 것은 이토를 만난 이후라고 증언한 것이다.

셋째, 신민회 결성에 참여한 인사들의 참석 가능 시기이다. 안창호는 자신과 함께 신민회를 결성한 인사들로 이갑·유동열·이동휘·전덕기·이동녕·양기탁을 들었다. 그리고 이강은 미국에서 온 자신과 임치정이 받기모임에 참여했다고 했다. 이 가운데 이동휘는 1907년 8월 13일부터 일본 경찰에 구금돼 있다가 12월 2일에 풀려났다.²⁹⁾ 1906년 이상설·정순만과 함께 간도로 가서 瑞甸書塾을 설립하고 운영을 맡았던 이동녕은 1907년 4월 헤이그 특사로 떠나는 이상설과 함께 블라디보스토크로 갔다가 한 달 뒤 서전서숙으로 돌아왔으며, 1907년 8월 다시 현지를 떠났다.³⁰⁾ 미국 공립협회 인사 가운데 이강은 1907년 8월 말 미국을 떠나서 10월 귀국했다. 이어 공립신보에서 회계를 맡아보던 임치정이 1907년 10월 말 미국을 출발하여 한국에 들어왔다. 임치정은 대한매일신보에 자리잡고 신민회 결성 작업을 거들었다.³¹⁾ 이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일 수 있었던 시기는 1907년 말 이후였다. 그리고 이강은 미주 공립협회의 연해주 특파원으로 파견돼 1908년 3월 24일부터 블라디보스토크의 해조신문에서 기자로 근무하기 시작했다.³²⁾ 따라서 안창호가 ‘귀국한 다음 해’에 신민회 결성 모임이 열린 것은 1908년 1월~3월 초였다.

넷째, 1909년 3월 신민회 취지서 및 통용장정을 입수한 일본 헌병대가 통감부에 보고한 내용이다. 종래 이 자료는 1965년 국사편찬위원회가 발간한 『한국독립운동

28) 대한매일신보는 1907년 11월 30일자(의 잡보 「請邀安氏」에서 “三昨日에 伊藤 통감이 미국에 在留 하든 안창호씨를 請邀하야 數三時間을 대화하얏다더라”라고 보도했다. 이어 1907년 12월 1일자(의 「黃河筆舌」은 “國雖不同이나 人之有愛國誠은 一也故로 賣國大臣은 牛馬로 사용하고 愛國志士는 賓客으로 경애한다”라고 평했다.

29) 반병률, 앞의 책, 66면.

30) 윤병석, 『李相高傳』, 일조각, 1984, 53면.

31) 김도훈, 「춘곡 임치정 선생」, 『2000년』 285, 현대사회문화연구소, 2007, 40~41면.

32) 공립협회는 1908년 2월 20일 총회에서 하와이와 블라디보스토크에 조직을 확장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서울에 머물고 있던 이강이 블라디보스토크로 파견됐다. 당시 해조신문 주필이던 장지연은 “是日[1908년 3월 24일] 李君正來(이강의 본명) 自京城來 爲本社執務”라고 적었다. 장지연, 「海港日記」, 『張志淵全書』 8권, 단국대학교 부설 동양학연구소, 1979, 1113면.

사』 1권에 탈초·수록한 것을 이용해 왔다. 그런데 『통감부문서』에 들어있는 원문을 확인하면 본문의 앞부분에 다음과 같은 헌병대의 보고가 붙어 있다.

“작년 중 재미 한국인 사이의 일부에 의해 설립되었다고 일컬어지는 대한신민회의 취지서 및 同會 통용장정을 보건대 별지(大要 번역)와 같다.”³³⁾ (강조는 인용자)

당시 일본 헌병대도 신민회가 그 전해인 1908년에 발족했다고 파악한 것이다. 그런데 이 서술은 정확하지는 않다. 일본 헌병대는 신민회를 1908년 재미 한인이 만들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1907년 미국에서 재미 한인이 발의했고, 1908년 국내에서 민족운동가들이 조직했다. 일본 헌병대의 보고는 두 가지 사실이 1년의 간격을 두고 일어난 점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신민회는 안창호가 귀국한 다음 해인 1908년 초에 결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Ⅲ. 신민회 결성에 1년이 걸린 이유

안창호는 1907년 2월 귀국 직후부터 신민회 결성을 추진했다. 그는 귀국 인사를 위해 대한매일신보 총무 양기탁을 방문했을 때 신민회 문건을 보여주면서 신민회 결성 문제를 상의했다. 하지만 그는 평양을 다녀와서 양기탁을 다시 만났을 때 놓고 갔던 문건을 도로 찾아갔다. 그리고 얼마 뒤에는 문건의 발표를 보류하기로 했으며 양기탁에게 관여하지 말라고 말했다.³⁴⁾ 이렇게 해서 한동안 중단됐던 신민회 결성은 1907년 11월 말 안창호가 이토 히로부미를 만난 뒤부터 다시 본격적으로 추진돼 이듬해 초에 성사된 것이다.

33) 주 24)와 같음.

34) 「105인 사건 제22회 공판시말서: 양기탁 부분」,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1권, 국사편찬위원회, 1986, 309~310면.

안창호가 신민회를 만드는데 귀국부터 1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을 이해하려면 그가 미국에서 갖고 온 대한신민회 취지서와 통용장정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보통 신민회 취지서는 1909년 3월 일본 헌병대가 입수하여 일본어로 번역한 것을 사료로 이용한다. 하지만 이것은 일본어로 옮기는 과정에서 원형이 훼손됐을 뿐 아니라 적지 않은 분량이 생략돼 전체 모습을 온전하게 파악할 수가 없다. 그런데 이강이 1909년 1월 31일 대동공보 주필대리가 된 직후 대동공보에 연재된 논설 「新韓國을 助成 爲려면 新民이 되어야 할 일」(1909년 3월 18·22·25일)을 일본 헌병대 번역본과 비교하면 그 내용이 거의 같은 것을 알 수 있다. 두 문서의 앞부분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생각건대 수백 년 이래 세계가 새로이 열리고 人智 역시 새로워지고 정치는 신정치, 법률은 신법률, 교육은 신교육, 공예는 신공예, 電車·輪艦은 새로이, 電砲·雨丸의 전술은 새로워서 兩球 대륙의 신기술은 날로 다투고 四面海洋의 新法이 날로 도래한다. 이때를 당하여 우리는 꿈만을 즐기고 헛소리만 하고 위에 있는 官紳은 권세를 다투고 뇌물을 탐내며 아래에 있는 인민은 迂遠하여 소용이 없는 것을 고수하고 명리에 치우치고 政令은 虛設의 우상이며 法文은 즉 폐기된 휴지와 같다. 因循姑息의 一句는 前後相傳의 心法이며 虛僞浮詐의 四字는 朝野에 통하는 법령이다. (일본 헌병대 번역본)

대개 수백 년 이래로 세계가 새로 열리며 사람의 지혜가 새로 열리어 정치는 새정치며, 법률은 새법률이며, 교육은 새교육이며, 공장은 새공장이며, 화차와 운선의 교통이 새로우며, 대포와 병선의 전술이 새로워 동서 대륙에 새 재주가 날로 발달하며 사면해양에 새법이 날로 건너오는데 우리는 꿈 깨며 잠꼬대 할 따름이라. 위에 있는 관리는 권리나 다투며 뇌물이나 탐하고 아래 있는 인민은 부패한 것이나 좋아하고 명리나 취하니 정령은 허설한 우상이며 법률은 버린 휴지와 같고 아직 관찮다는 말 한 구절은 전해오는 심법이며 虛僞浮詐 네 글자는 정부와 백성 사이에 통행하는 상경이라. (대동공보 연재 논설)

일본 헌병대 번역본의 ‘工藝’ ‘電車’ ‘輪艦’ ‘電砲’라는 단어는 대동공보 연재논설에서 ‘공장’ ‘화차’ ‘운선’ ‘대포’이다. 또 ‘兩球 대륙’ ‘因循姑息’ ‘前後相傳’은 ‘동서

대륙’ ‘아직 괜찮다’ ‘전해오는’에 해당한다. “꿈만을 즐기고 헛소리만 한다”는 “꿈 깨며 잠꼬대할 따름”으로 돼 있다. 두 문건을 대조하면 대동공보 연재 논설이 한국어에 더 자연스러운 표현이다. 일본 헌병대 번역본은 원문을 일본어로 옮기면서 일본식 표현이 상당히 들어갔다.

대동공보 연재 논설에는 미국에서의 신민회 발의 부분이 빠져 있다. 이는 신문 논설이라는 성격상 자연스럽다. 그 대신 일본 헌병대가 ‘前略’ ‘中略’이라고 표시하며 번역하지 않은 부분이 모두 들어있다.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대동공보 연재 논설이 신민회 취지서에 바탕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미국에서 신민회를 발의한 주역 가운데 한 사람이고 그것을 직접 썼을 가능성이 있는 이강이 신민회 취지서의 원본을 갖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이런 판단을 근거로 이 논문은 대동공보 연재 논설을 신민회 취지서로 인용한다.

신민회 취지서는 크게 (1) 한국의 낙후된 현실 비판 (2) 국권 상실에 대한 안타까움 (3) 維新의 필요성 강조 (4) 신민회 발의와 목적의 네 부분으로 구성돼 있다. 장문의 이 글은 먼저 “선비가 숭상하는 바는 문자에 있고 실지에 있지 아니하며 공상은 거짓으로 꾸미고 정미함을 구하지 아니하는 고로 정치문화와 범백미술이 하나도 퇴보치 아니함이 없다.”라고 당시 한국의 현실을 진단했다. 이어 개항 이후 수십 년 한국의 정치 상황을 다음과 같이 신랄하게 비판했다.

[대신의 자리에 앉게 되면] 다만 꺼리고 근심하는 것은 혹 국민의 사상이 열리고 운동이 일어나서 우리의 학정을 반대하면 내가 장차 어찌하며 우리의 무도함을 항거하면 내가 장차 어찌하리오 하여 언론이 조금 격렬하면 그물에 몰아넣으며, 행동이 조금 기이하면 함정에 빠뜨려서 지혜를 막아버리고 생기를 죽여버렸다. …… 청탁하는 뇌물은 날로 대신·협판의 집으로 들어가며 남의 재물을 빼앗는 협잡은 각도각군에 가득하여 이천만 백성의 피를 욕심 많은 아귀무리의 입에 받치더니 동방이 밝으매 어두운 행락이 어찌 장구하랴. 슬프다, 독립 두 글자가 꿈 가운데 우연히 왔다가 산하 풍경이 눈앞에 홀연히 변하는 도다.³⁵⁾ (밑줄 부분은 일본 헌병대 번역문에서 생략됨)

이어 러일전쟁 이후 국권이 상실되어가는 상황을 “두어 간 초가도 내 집이 아니며

35) 대동공보, 1909년 3월 18일, 논설 「新韓國을 助成하라면 新民이 되어야 할 일」.

두어 이랑 전답도 내 땅이 아니라”고 안타까워했다. 그런 다음에 이같은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維新, 그중에서도 ‘진정한 유신’과 개혁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나라를 위하는 것은 다만 스스로 새롭게 할 따름이라. …… 한번 생각함도 유신함에 있으며 한번 꿈도 유신함에 있으며 한번 말함과 한번 동함이 유신하는 데 있어 이 혈성을 갖고 용맹 있게 나아가면 이 나라가 마침내 유신할 날이 있을 것이다. …… 부패한 사상을 불가불 개혁할 것이나 이로 말미암아 조국을 멸시하며 외인을 숭배함이 염려할 바이며 더러운 풍속을 불가불 개량할 것이나 이로 말미암아 자국정신을 버리고 정의를 어김이 두려워할 바이며 …… 슬프다, 수구당이 나라를 그릇되게 하는 것은 유신으로 구원하려니와 유신당이 나라를 그릇되게 하는 것은 장차 무슨 술법으로 구원하리오. 그러므로 유신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진정한 유신이 어렵도다.³⁶⁾ (밑줄 부분은 일본 헌병대 번역문에서 생략됨)

그리고 결론 부분에서 ‘새 국가’를 건설하고 ‘신한국 초년의 중흥공신’이 되자고 역설했다.

사상이 부패하니 신사상이 긴급하며, 민지가 우매하니 신교육이 긴급하며, 도덕이 타락하니 신윤리가 긴급하며, 문화가 쇠퇴하니 신학술이 긴급하며, 정치가 부패하니 신개혁이 긴급하다. …… 새 정신을 불러 깨우며 새 단체를 조직하여 새 국가를 건설할 따름이다. …… 오라, 대한신민이여, 지나간 사천 년 구한국 말년에 망국한 귀신이 되려는가, 미래 역만세 신한국 초년에 중흥공신이 되려는가. 어느 것을 버리고 어느 것을 좇으려는가.³⁷⁾

신민회 취지서는 전체적으로 일본의 침략에 대한 규탄에 무게가 실렸다고보다 한국의 낙후된 현실을 개혁해야 국권을 회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신민회 통용장정

36) 대동공보, 1909년 3월 22일, 논설 「新韓國을 助成하랴면 新民이 되어야 할 일」(前號續). ‘나라를 그릇되게 하는 유신당’을 비판하는 부분은 당시 한국 사회의 개혁을 내걸고 일본 통감부에 적극 협력한 일진회를 지목한 것으로 보인다. 신민회는 스스로를 ‘진정한 유신’을 추구하는 단체로 내세우며 수구당은 물론 外人을 숭배하고 自國情神을 버리는 유신당과도 차별성을 강조했다.

37) 대동공보, 1909년 3월 25일, 논설 「新韓國을 助成하랴면 新民이 되어야 할 일」(前號續).

은 이를 요약하여 “본회의 목적은 우리 한국의 부패한 사상과 습관을 혁신하여 국민을 유신시켜 쇠퇴한 교육과 산업을 개량하고 사업을 유신시켜 유신된 국민이 통일연합해서 유신된 자유문명국을 성립시킨다”라고 규정했다. ‘국민 유신→사업 유신→유신된 자유문명국 수립’을 단계적 과제로 설정한 것이다. 일본 헌병대와 비슷한 시기에 신민회의 조직을 파악한 일본 경찰은 신민회가 지향하는 ‘유신된 자유문명국’에 대해서 ‘열강들의 보호 아래 공화정체의 독립국’³⁸⁾이라고 보고했다. 이제까지 연구자들도 대체로 신민회가 공화정을 지향했다고 이해하고 있다.³⁹⁾

신민회가 공화정을 명시적으로 표명하지는 않았지만 그 결성을 주도한 안창호는 황제에게 권력이 집중된 대한제국의 정치체제에 매우 비판적이었다. 그는 귀국하고 석 달 뒤인 1907년 5월 12일 서울 동소문 밖 三仙坪에서 열린 서북학생연합운동회에서 다음과 같이 연설했다.

우리나라는 몇 천 년 동안 국가와 백성 사이가 떨어져 있어 백성이 국가를 한 개인의 소유로 생각했다. 고려 때는 王氏의 나라라 했고, 조선에 들어서는 李氏의 나라라 하여 그 흥망이 나와 무관하다고 여겼다. 국가는 백성을 잡아먹는 魚肉으로 여겨서 큰 고기는 중간 고기를 먹고, 중간 고기는 작은 고기를 먹어서 껍질을 벗겨 침탈하는 것을 농사로 삼았다. …… 국가는 한 사람의 소유가 아니다. 우리의 어깨 위에 大韓 두 글자를 각자가 짊어지고 있으니 이제까지의 생각을 버려야 한다.⁴⁰⁾ (강조는 인용자)

국가가 국왕 한 사람의 소유라는 생각, 즉 군주주권론을 비판하고 국민 각자가 국가를 짊어지고 있다는 주장을 펼 것은 1907년 5월의 시점에서 획기적이었다. 이는 국민주권론이라고 할 수 있다.⁴¹⁾ 당시는 러일전쟁 발발 이후 고종의 군주권이 제약받고 을사조약으로 외교권이 일본에 넘어간 상황이었지만 국왕이 무한한 君權을 행사

38) 『통감부문서』 9권, 1909년 3월 12일, 警秘 제591호의 1, 「在美 대한신민회의 件」.

39) 신용하·윤경로·박만규·박찬승 등은 신민회가 공화정을 지향했다고 본다. 반면 한규무는 대한제국 멸망 이전에 군주제 폐지와 공화정 수립이라는 민감한 문제가 거론됐을 지에 대해 유효적이다. 한규무, 앞의 발표문, 71면.

40) 「연설 회원 안창호」, 『西友』 7(1907년 6월), 서우학회, 27면.

41) 박만규, 「한말 안창호의 근대국민 형성론과 그 성격」, 『전남사학』 11, 전남사학회, 1997, 436~437면.

하는 專制정치를 선언한 大韓國國制가 여전히 존속하고 있었다. 따라서 안창호의 군주주권론 비판은 國憲 문란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었다. 그래서 아무도 감히 그런 주장을 펼치지 못했기 때문에 안창호의 연설을 현장에서 듣거나 『西友』 잡지를 통해서 본 사람은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⁴²⁾

군주주권론을 비판한 것이 안창호만의 생각은 아니었다. 그가 창립을 주도했고 초대 회장을 맡았던 미주 공립협회의 기관지 공립신보는 국왕이 전권을 행사하는 대한제국의 정치 현실에 일찍부터 비판적이었다. 1906년 9월에 이미 君權을 강조하고 백성의 순종을 요구하며 과거를 숭상하는 교육은 ‘노예교육’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民權과 자유, 현재를 중시하는 ‘국민교육’을 강조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이전 세대에는 임금의 권리가 지극히 싱그럽다 하여 전국 인민으로 하여금 君權을 높이기로만 주장하여 일국 흥망이 한 사람의 손 가운데 있었거니와 지금 세대는 그렇지 아니하여 백성의 權이 튼튼하면 나라의 임금과 정부가 반석과 태산의 평안을 얻을지라. 그러면 일국의 흥망이 백성의 손 가운데 매였으니⁴³⁾

한국의 정치체제에 대한 공립신보의 비판 목소리는 신민회 결성에 즈음해서 더욱 높아졌다. 1908년 2월에는 “나라는 백성의 나라요 임금과 정부의 나라가 아니라. 임금이나 정부가 잘못할 때에 극력 항거하여 바로잡는 것이 국민의 의무”라며 “슬프다, 우리 국민이여. 어찌하여 의무를 몰랐으며 어찌하여 의무를 아니하였는가.”⁴⁴⁾라고 개탄했다. 이어 1908년 3월에는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유학 중이던 이승만이 “‘忠君愛君’과 ‘忠國愛國’은 이제 더 이상 갖지 않다.”라며 임금이 나라와 백성을 외국에 팔아먹을 경우에는 나라를 버리든지 임금을 버리든지 양자택일해야 한다고

42) 황성신문은 서북학생연합운동회를 보도하면서 “내빈 중에 안창호 씨가 일장연설을 激切히 하여 학생을 勸勉하였다더라.”라고 전했다. 황성신문, 1907년 5월 14일, 잡보 「運動盛況」. 이강은 “(안창호의) 그 당시의 연설은 모두 좋았지만 삼선평 것도 잘 되었다고 평판이 높았다.”라고 했다. 박현환 편, 앞의 책, 139면.

43) 공립신보, 1906년 9월 19일, 논설 「교육에 분별이 특별히 있음」.

44) 공립신보, 1908년 2월 19일, 논설 「국민의 의미」.

주장했다.⁴⁵⁾ 급기야 1908년 7월에는 군주주권론 비판이라는 원론적인 차원을 넘어서 급기의 영역으로 여겨지던 현실의 국왕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수십 년 이래로 우리나라의 정부가 심히 우매하여 임금은 민권 자유를 허락하여 헌법의 기초를 정하지 아니하고 다만 악독한 전제만 숭상하여 국가는 임금의 국가로 알며”⁴⁶⁾라는 비판은 여전히 국왕을 신성불가침의 존재로 생각하던 당시 대부분의 한국인에게는 놀라운 것이었다.

이에 비해 당시 국내의 많은 민족운동가들은 군주주권론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1880년대~1890년대 전반의 근대화 운동을 주도했던 개화파는 물론 1890년대 후반에 활동한 독립협회까지도 군주권을 제한하려는 단계에 머물러 있었고, 러일 전쟁 발발 이후 고종이 일본의 강한 견제를 받는 상태에 이르러서야 겨우 입헌군주제 운동이 일어났다.⁴⁷⁾ 대한자강회가 ‘입헌정치’를 표방했고, 그를 계승한 대한협회는 ‘입헌군주제’를 내걸었지만 역시 군주권을 제한하는 차원이었고 아직 국민주권론과는 거리가 있었다. 특히 정치적 계산에 밝은 고위 관리나 직업적 사회운동가들은 국민 대다수가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지 않은⁴⁸⁾ 국민주권론을 선뜻 지지할 수 없었다. 하지만 안창호는 군주권의 제한 정도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안창호와 국내 민족운동가들의 간극은 헤이그 특사 사건으로 1907년 7월 고종이 강제 양위된 뒤에야 좁혀질 수 있었다. 44년간 재위했던 고종이 물러나고 정치적 영향력이 전혀 없는 순종이 그 자리를 대신하자 민족운동가들의 군주에 대한 심리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었다.⁴⁹⁾ 이에 따라 신민회 결성이 본궤도에 오를 수 있었고, 안창호가 동지들을 본격적으로 규합한 뒤에 성사됐다.

45) 공립신보, 1908년 3월 4일, 논설 「在美韓人 前途」(이승만).

46) 공립신보, 1908년 7월 22일, 논설 「미국에 있는 동포는 空手로 한국함이 不可함」.

47) 박찬승,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1장, 돌베개, 2013; 도면회, 「황제권 중심 국민국가체제의 수립과 좌절(1895~1904)」, 『역사와 현실』 50, 한국역사연구회, 2003.

48) 조경달은 19세기 이후 ‘一君萬民’ 사상이 민중운동까지 확산되면서 오히려 군주권이 강화돼 갔고, 대한제국에 이르러 그 절정인 ‘일군만민 체제’가 성립됐다고 보았다. 趙景達, 『近代朝鮮의 政治文化と民衆運動：日本との比較』, 有志舎, 2020.

49) 박만규, 앞의 논문, 435~438면.

IV. ‘1906년 상동파 신민회’ 說 검토

신민회의 결성 시점과 관련하여 또 하나 검토해야 할 것은 안창호의 귀국 이전인 1906년 무렵에 이미 상동교회를 중심으로 신민회가 활동하고 있었다는 주장이다. 신민회 결성에는 양기탁·신채호 등 대한매일신보 그룹, 전덕기·이동녕 등 상동교회 그룹, 이갑·이동휘·유동열·조성환·노백린 등 청년장교 그룹, 안창호·이강·임치정 등 미주 공립협회 그룹 등 다양한 사회·정치세력이 참여했다.⁵⁰⁾ 그리고 이승훈·안태국·최광옥 등 서북 지역의 민족운동가들이 합류했다. 이 가운데 을사조약 반대 운동을 주도하던 상동교회 그룹이 먼저 신민회를 만들었고, 안창호는 뒤에 참여했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가장 먼저 편 사람은 이재순이다. 그는 『大韓季年史』 등을 인용하며 1900년대 초반에 상동교회를 중심으로 평민·천민 출신이 민족운동을 벌였고, 을사조약 반대 투쟁 과정에서 민족적·민권적 입장의 각계 신진 지식층이 상동교회로 모여들었다고 했다. 그리고 이들이 1906년 무렵 양기탁을 중심으로 신민회를 결성했으며, 이듬해 미국에서 돌아온 안창호와 군대해산 이후 이갑·이동휘 등이 참여하면서 조직이 정비·확대됐다고 추론했다.⁵¹⁾

뒤이어 개신교 교회사학자들이 새로 공개된 자료를 이용하여 신민회 결성에서 상동파의 역할을 더욱 부각시켰다. 송길섭은 이회영 부인 이은숙의 『민족운동가 아내의 수기』(1975년 출간)와 전택부의 『한국기독교청년회운동사』(1978년 출간)를 인용하며 전덕기 목사를 중심으로 한 상동파가 을사조약 반대 운동을 전후하여 상동교회에서 활동했고, 이들이 신민회의 母體가 됐다고 주장했다. 지도력이 아쉬웠던 상동파가 국내 조직이 필요했던 안창호를 영입해서 신민회가 조직됐다는 것이다.⁵²⁾ 윤춘병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상동교회의 항일 민족운동을 주도하던 상동청년회가 1906년 해산당한 뒤 그 후신인 상동청년학원의 교직원과 상동교회 교인이 신민회를 조직했고, 1907년 2월 안창호가 귀국하자 이를 확대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友堂 李會榮

50) 신용하, 앞의 1977 논문, 36~37면.

51) 이재순, 앞의 논문, 3~8면.

52) 송길섭, 「전덕기 목사와 신민회 조직 및 활동 상황」, 『한국교회사학회지』 1, 한국교회사학회, 1979, 52~61면.

略傳』(1985년 발간)에 들어있는 이회영의 측근 이관직과 이정규의 글을 인용하여 안창호가 참여하기 전 신민회의 실체를 드러내려고 시도했다.⁵³⁾ 이어 서영석은 전덕기의 측근이었던 김진호의 글을 인용하여 독립협회가 해산된 뒤에 그 일부가 상동교회의 청년회로 모여들었고, 이들이 신민회라는 비밀결사를 만들었다고 보았다. 그 역시 안창호의 귀국 이전에 신민회가 상동교회 내에 어떤 형태로든 구성돼 있었고, 상동파의 주요 인물이 초기 신민회를 주도했다고 주장했다.⁵⁴⁾

‘1906년 상동파 신민회’ 설은 학계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확산돼 영향을 미치고 있다.⁵⁵⁾ 따라서 연구자 가운데에서도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⁵⁶⁾

안창호가 귀국하기 전에 상동파가 신민회를 만들었거나 그에 상응하는 조직체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연구자들이 근거로 제시하는 자료는 전택부⁵⁷⁾ · 이은숙⁵⁸⁾ · 이정규⁵⁹⁾ · 이관직 · 김진호의 글이다. 이 가운데 개신교 원로인 전택부, 1908년 11월

53) 윤춘병, 『전덕기 목사와 민족운동』, 감리교출판사, 1996, 53~60면.

54) 서영석, 「신민회 창립에 따른 상동파의 역사적 위상과 정신」, 『한국교회사학회지』 30, 한국교회사학회, 2011, 232~242면.

55) 상동교회 홈페이지(www.sangdong.org)는 교회 역사를 설명하면서 “1906년, 상동파가 주축이 돼 신민회 조직, 구국 민족운동 전개”라고 적었다. 이회영기념관 홈페이지(leehoeyeong.com)는 이회영의 일대기를 소개하면서 “1906년, 상동교회 지하에서 전덕기 · 이동녕 · 양기탁과 신민회를 조직하다.”라고 썼다.

56) 윤경로는 개신교 교회사학자들의 연구에 주목하면서 “신민회의 창립 시기와 지향하려고 한 정채 등에 관한 보다 폭넓은 연구와 토론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윤경로, 「도산 안창호의 구국계몽 운동에 관한 연구성과와 과제」, 『도산학연구』 14 · 15, 도산학회, 2015, 124~126면.

57) 전택부는 1956년 최남선을 면담했을 때 그가 “상동교회 뒷방에는 전덕기 목사를 비롯하여 이회택 [이회영의 착오일 것이다: 필자], 이상설, 이준 씨 등 지사들이 무시로 모여 국사를 모책했는데 나는 그때에 끼인 일이 있다.”라고 말했으며, 자신이 이를 개신교 교계 신문을 통해 공표했다고 적었다. 전택부, 『한국기독교청년회운동사』, 정음사, 1978, 244면.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 시기는 1905년 1월~1906년 4월 사이가 된다. 최남선은 1905년 1월 1차 1차 일본 유학에서 돌아왔고, 1906년 4월 다시 일본으로 건너가 1908년 6월에 귀국했기 때문이다. 류시현, 『최남선평전』, 한겨레출판, 2011, 30면. 최남선이 2차 일본 유학에서 돌아왔을 때 이준은 이미 사망했고, 이상설은 헤이그 특사로 활동한 뒤 미국에 있었다.

58) 이은숙은 “우당장은 남대문 상동초등학교 학감으로 근무하시니, 그 학교 선생은 전덕기 · 김진호 · 이용태 · 이동녕 씨 등 다섯 분이다. 이들은 비밀독립운동 최초의 발기인이시니.”라고 적었다. 이은숙, 『민족운동가 아내의 수기: 西間島 始終記』, 정음사, 1975, 13면.

59) 이정규는 “선생[이회영]과 함께 이 회[신민회]를 조직하고 회원으로 가입한 지사들은 전덕기 · 이동

이회영과 결혼한 이은숙, 이회영이 1920년대에 중국에서 아나키즘 운동을 벌일 때 함께 활동했던 후배 이정규의 증언은 모두 다른 사람에게서 전해 들은 것이어서 1차 자료라고 할 수 없다. 상동파와 신민회의 관련을 추적하는 데 보다 적합한 것은 1900년대 후반 상동교회에 직접 드나들었던 김진호⁶⁰⁾와 이관직⁶¹⁾의 글이다, 먼저 당시 상동교회에서 근무했던 김진호는 다음과 같이 적었다.

會[상동청년회]의 간부 몇 사람이 상동교회의 지하실에 따로 모여 決死救國을 목적하고 無形한 회를 조직하니 곧 신민회이다. 간부로 전덕기·이동녕·이회영·양기탁 씨 등이고, 신민은 비밀에 속하고 회로는 청년회가 있고, 기관지로는 매일신보가 있고, 교육으로는 청년학원이 있었다. …… 그 회에는 안창호 선생의 열렬한 辯說과 기타 회원들의 扇傳으로 불같이 일어났다.⁶²⁾

조용한 시간에 석오[이동녕]와 전 목사는 나를 불러 우리 단체에 참가하기를 권한다. 하루 저녁에 두 분을 따라서 서소문 외 임치정 씨 댁에 갔었다. 그 자리에는 운강 양기탁 씨가 있어 입회식을 주장하고 사상문답이 있었고 서약하는 몇 중요 문답이 있었다. 그 회의 이름은 신민회인데 절대 비밀이요 그 간부가 종종 교회 지하실에 모여 방침을 협의했는데 그때 모인 사람은 전덕기·

녕·이동휘·양기탁·김구·이갑·여준·김진호·김형선·이관직 등이었는데 …… 상동기독교회는 신민회의 본부처럼 이용되어 그 지하실에서 선생과 전덕기 목사·이동녕·양기탁 등 네 사람이 아침저녁으로 만나 비밀회의를 계속했다.”라고 썼다. 이정규, 『友堂 李會榮 略傳』, 『友堂 李會榮 略傳』, 을유문화사, 1985, 39면.

- 60) 김진호는 1906년 전덕기의 감화를 받아서 상동교회에 다니기 시작했고, 1907년 세례를 받은 후 상동청년학원과 공옥학교의 교원으로 근무했다. 그는 1911년부터 상동교회 전도사로 전덕기의 목회와 민족운동을 도왔다. 배재학당 교원으로 3·1운동에도 적극 참여했던 그는 훗날 목사가 됐고, 3·1운동 당시 민족대표 33인이었던 이필주·최성모 목사와 함께 전덕기 목사의 감화 아래 성장한 ‘상동교회의 삼총사’로 불린다. 『상동교회백십일년사』, 기독교대한감리회 상동교회, 1999, 120~125면.
- 61) 이관직은 육군 무관학교 출신으로 대한제국의 장교였으며 1907년 8월 군대해산 후 경상북도 안동의 협동학교 교사로 근무했다. 이회영의 부인 이은숙의 할아버지뻘인 그는 이회영을 몹시 따랐고, 1910년 이회영 등이 만주로 이주할 때 함께 가서 신흥무관학교의 군사교관을 맡았다. 『독립유공자 공적조서』 9권, 1991(공훈전자자료관 <<https://e-gonghun.mpva.go.kr>> 검색) 참조.
- 62) 김진호, 「전덕기 목사 小傳」, 『病中瑣錄』(미간행원고), 1949(『나라사랑』 97, 외솔회, 1998, 376~377면).

이동녕 · 양기탁 · 이회영 · 이승훈 씨 등이다. 그 회의 집회는 매주 목요일 오후 7시에 교회에 모여 잠깐 예배보고 난 후에는 여러 지사들의 열렬한 강설이 있었고, 이준 · 이상설도 자주 와서 강설했는데 예전 독립협회 후신들이다.⁶³⁾

김진호의 글에는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과 전해 들은 것이 섞여 있다. 전덕기와 이동녕을 따라 임치정의 집으로 가서 양기탁의 주관으로 신민회에 가입했다는 것은 자신이 겪은 일이다. 다른 부분은 전해 들은 것인데 사실과 다른 점이 있다. 예를 들어 이준과 이상설은 신민회가 만들어질 때 사망했거나 국내에 없었고, 이상설은 독립협회와는 관련이 없다.

한편 이회영을 따라서 상동교회에 자주 드나들었던 이관직은 다음과 같이 적었다.

비밀결사로는 (이회영) 선생이 상동기독교회 안에 조직한 신민회가 있는데 항상 전덕기 · 이동녕 · 양기탁 등 네 사람이 지하실에서 회합하여 광복 운동을 비밀리에 협의하였는데 회원 동지 5 · 6인 외에는 달리 아는 이가 없었다. 신민회의 규약은 다음과 같았다.

1. 회원은 조국 정신을 굳게 지키고, 조국 광복에 헌신하여 충성을 다할 것.
1. 회원은 조국을 위해선 先賢先烈을 사모하고 繼述할 것.
1. 회원이 본회를 배반했을 때는 어느 때든지 그 생명을 빼앗길 줄 알 것.
1. 회원은 비밀을 엄수할 것이며 탄로났을 때는 혀를 깨물고 말하지 말 것.
1. 회원은 달고 쓴 생활과 힘들고 편한 활동을 다른 회원들과 함께할 것.⁶⁴⁾

두 사람의 글에 공통되는 내용은 상동교회에 ‘決死救國의 광복운동’을 벌이는 비밀결사가 있었고, 그 핵심인물은 전덕기 · 이회영 · 이동녕 · 양기탁이었으며, 이들이 만든 조직이 신민회라는 것이다. 안창호가 신민회에 나중에 가담한 것으로 서술하는 것도 같다.

신민회가 결성되기 전에 상동교회에 비밀결사에 가까운 조직이 있었고, 전덕기 · 이회영 · 이동녕 · 양기탁이 중심인물이었던 것은 사실로 보인다. 그런데 이관직이

63) 김진호, 「81세 회고」, 『病中鎖錄』(미간행원고), 1953(예산 김진호 홈페이지<www.aesan.or.kr>에 수록).

64) 이관직, 「友堂 李會榮 實記」, 『友堂 李會榮 略傳』, 을유문화사, 1985, 137~138면.

말하는 규약에 나타난 그 성격은 앞에서 살펴본 신민회와는 상당히 다르다. ‘조국 정신’ ‘조국 광복’ ‘先賢先烈’의 강조는 전통적인 애국사상의 표현으로 ‘유신’ ‘신정신’ ‘신국가’ ‘신한국’을 역설하는 신민회와는 크게 차이가 난다. 그리고 이런 차이를 이해하려면 상동파의 변화 과정을 면밀하게 추적할 필요가 있다.

상동교회는 원래 반정부 성향이었다. 우선 상동교회에서 영향력을 키워가며 교회를 이끌었던 전덕기부터가 독립협회 운동에 적극 참여한 인물이다. 그는 이상재·이승만·이동녕 등과 함께 독립협회의 토론회 활동을 주도했다. 1898년 12월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가 정부에 의해 강제해산되자 체포되거나 도주한 인사를 제외한 나머지 관련자들은 전덕기를 따라서 상동교회로 모여들었다.⁶⁵⁾ 이런 정황은 안중근의 하얼빈 의거에 참여한 우덕순이 훗날 “그때 독립협회가 해산되므로 상동예배당에 청년회를 세우고 전에 하던 일을 속으로 계속하다가 소위 을사조약이 체결됨으로부터는 이것도 저것도 할 형편이 못되므로 드디어 해삼위로 내뿔었다”⁶⁶⁾라고 회고한 데서도 알 수 있다.

상동교회가 반정부 세력의 근거지였던 것은 상동청년회와 상동청년학원의 간부 구성에서도 확인된다. 1903년 9월 재건된 상동청년회의 다정국장을 맡았고, 이듬해 9월 통신국장이 된 박용만은 일본 유학 시절 박영효와 교분을 맺었다가 1901년 3월 귀국하면서 체포돼 옥고를 치렀다.⁶⁷⁾ 박용만이 상동청년회의 지원을 받아 1905년 2월 미국 유학을 떠난 뒤 그 자리를 이어받은 정순만은 독립협회 활동에 참여했고, 1899년 1월 발생한 박영효의 고종 황제 폐위 음모 사건에도 연루됐다.⁶⁸⁾ 1904년

65) 김진호는 “그때 (독립)협회를 주장하던 이승만·이상재 등은 다 검거되고 爾餘 간부는 도피하고 爾餘 간부와 회원들은 상동청년회로 몰려들어와 종적을 감추었다.”라고 썼다. 김진호, 「청년학원 부활운동」, 『病中鎖錄』(미간행원고), 1948 (김주황, 「김진호의 기록물을 통한 생애 연구」, 협성대 박사학위 논문, 2021, 59~60면에서 재인용) 3·1운동 이후에 만들어진 일본 측 기록은 상동청년회에 대해 “이전의 독립협회가 耶蘇敎의 가면을 쓰고 대두했다.”라고 파악했다. 『朝鮮獨立運動の根源』, 『齋藤實文書』 9권, 高麗書林, 1999, 354면.

66) 「우덕순 선생의 회고담」, 『안중근선생공판기』, 경향잡지사, 1946, 195면 (『안중근의사자료집』,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99에 수록) 우덕순과 상동교회의 관계에 대해서는 홍일교, 「우덕순(1876~1950)의 민족운동과 공판투쟁」, 『지역문화연구』 10, 세명대 지역문화연구소, 2011, 289~292면.

67) 김도훈, 『박용만』, 역사공간, 2010, 21~22면.

68) 신세라, 「정순만의 생애와 민족운동」, 『한국근현대사연구』 25, 한국근현대사학회, 2003, 233~235면.

10월 문을 연 상동청년학원의 교장은 대표적인 반정부 청년운동가로 박영효의 고종 황제 폐위 음모 사건에 연루돼 5년 7개월이나 투옥됐다가 막 석방된 이승만이였다. 국어 교사로 초빙된 주시경 역시 독립신문이 창간되자 서재필을 도와서 국문판 제작에 참여했고, 그가 미국으로 추방된 뒤에는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 운동에 적극 참여했다가 투옥된 바 있었다.⁶⁹⁾

그런데 상동교회의 분위기는 을사조약 반대 운동이 시작되면서 바뀌었다. 이준과 김구 등 각계의 애국적인 인사들이 상동교회로 모여들면서 정부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전덕기를 비롯한 상동파 지도자들도 국권 수호가 절박한 과제로 대두되자 합리적이고 애국적인 고위 관리들과 제휴했다.⁷⁰⁾ 마침 박용만·이승만 등 극렬한 반정부 인사는 미국으로 간 뒤였다. 이 무렵부터 애국적인 고위 관리들과 가깝고 고종과도 관계가 원만했던 이회영 등이 상동교회를 드나들면서 반일 구국운동에 깊숙이 관여했다. 김진호가 말한 ‘결사구국을 목적으로 한 무형한 신민회’, 이관직이 말한 ‘광복 운동을 비밀리에 협의한 신민회’는 이 무렵의 활동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안창호가 귀국하면서 상동교회의 분위기는 다시 한번 달라졌다. 안창호는 귀국 이후 상동교회와 긴밀한 관련을 맺었다. 그는 한국에 도착한 뒤 첫 일요일인 1907년 2월 24일 상동교회를 찾았다.⁷¹⁾ 안창호의 측근이었던 주요한은 이 무렵 그의 움직임을 다음과 같이 적었다.

도산은 서울의 숙소를 남대문 밖 제중원(후에 세브란스병원) 숙직실에 정하여 병원 직원인 김필순과 함께 거처하였고, 매일 한 번씩 문안에 들어오면 최남선이 경영하는 신문관(구리개 근처), 전덕기 목사가 있는 상동예배당을 들러 원동(지금의 원서동)에 있는 추정[이갑] 사저를 방문하는 것이 일과가 되었다.⁷²⁾

69) 주시경의 제자 김윤경이 쓴 「주시경선생전기」(한글학회, 1960)는 독립협회·협성회·만민공동회에서 이승만·이동녕·양기탁·신희우 등 동지들과 함께 맹활약하는 ‘청년정치가 주시경’의 모습을 자세하게 그리고 있다(『나라사랑』 4, 외솔회, 1971, 216~221면).

70) “시국의 추이에 따라서 朝野가 排日主義에 열중하고 大官들이 속속 (상동)청년회에 가입했다”(韓國內部警務局 編, 『顧問警察小誌』, 1909, 97면)라거나 “(상동청년회를) 민영환·이시영·이상설 등 大官들이 후원했다”(『朝鮮獨立運動의 根源』, 『齋藤實文書』 9권, 高麗書林, 1999, 354면)라는 일본 측 기록은 이런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71) 「요시찰인 귀국의 件 [안창호의 경성 체류]」, 顧秘 제169호, 『한국근대사자료집성 제3권: 요시찰한 국인거동 3』, 국사편찬위원회, 2001.

안창호와 전덕기가 돈독한 사이가 된 것은 1913년 미국에 있는 안창호에게 전덕기가 보낸 간곡한 필치의 서한으로도 입증된다.⁷³⁾ 5년 만에 한국에 돌아온 안창호가 당시 국내에서 민족운동의 거점 역할을 하고 있던 상동교회에 주목하고, 신민회를 결성할 때 그 인맥을 활용한 것은 당연했다. 을사조약 반대 운동 때 상동교회를 후원하던 민영환·이상설 같은 대한제국의 고위 관리들이 세상을 떠나거나 해외로 망명한 빈자리를 국민주권론자이자 개혁론자인 안창호가 메운 것이었다.

‘1906년 상동과 신민회’ 說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은 이관직이 신민회 회원을 前과 後로 나눈 점이다.⁷⁴⁾ 신민회를 안창호의 참여를 분기점으로 두 시기로 구분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자신들의 입장에서 신민회를 설명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안창호의 귀국 이전에 상동교회를 중심으로 활동하던 구국운동 그룹이 있었다. 하지만 신민회는 그와 성격이 상당히 달라서 개혁운동 단체로서의 면모가 두드러졌다. 따라서 상동교회의 기존 비밀결사에 가담했던 인사 가운데 상당수가 신민회의 결성에 참여했다고 해도 두 조직은 구별해야 한다.⁷⁵⁾

IV. 맺음말

대한제국 후기는 조선왕조의 개창 이래 수백 년 동안 지속된 정치·사회체제의 개혁 운동과 본격화하고 있던 일본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는 국권 수호 운동이

72) 주요한, 『추정 이갑』, 대성문화사, 1964, 19면.

73) 「전덕기→안창호 서한(1913)」, 『도산안창호전집』 2권, 도산안창호기념사업회, 2000, 770면. 전덕기는 이 편지에서 이동휘·이동녕·이승훈·양기탁·임치정·조성환 등 신민회 동지들의 소식을 전했다.

74) “신민회의 前後 총인원은 전덕기·이회영·안창호·이동녕·김구·이갑·여준·이동휘·양기탁·김진호·김형선·이관직 등이었다.”(이관직, 앞의 책, 138면) 여기에 등장하는 인사 가운데 여준·김형선·이관직은 보통 신민회 회원으로 거론되지 않는다. 이들은 한국이 일본에 강제병합된 뒤에 이회영과 함께 서간도로 망명하여 경학사와 신흥무관학교 설립과 운영에 참여했다. 서중석, 『신흥무관학교와 망명자들』, 역사비평사, 2001 참조.

75) 윤춘병은 1906년 무렵 상동교회에서 활동하던 구국운동 그룹이 신민회라는 명칭을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유보적이다. 신민회라는 이름은 안창호가 합류한 뒤에 붙었다 하더라도 조직의 맥을 이었다는 점에서 그들이 그렇게 서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윤춘병, 앞의 책, 57면.

교차했던 시기였다. 특히 헤이그 특사 파견의 여파로 고종이 강제퇴위되고 군대가 해산된 1907년 8월 이후는 국권 상실의 위기감이 눈앞에 닥친 급박한 상황이었다. 이런 가운데 민족운동에 새로운 방향과 지도력을 제시한 신민회의 결성 시점과 그 의미에 대한 파악은 이 시기는 물론 나라가 망한 이후의 민족운동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도 중요하다.

비밀결사였던 신민회의 결성 시기에 대해서는 1906년, 1907년 2월, 1907년 4월, 1907년 후반, 1907년 말 또는 1908년 초 등 여러 학설이 제기됐다, 이 가운데 ‘1907년 4월’說이 통설로 여겨지지만 그 근거는 매우 취약하다. 그보다는 신민회 결성을 주도한 안창호의 진술, 그의 최측근이었던 이강이 남긴 기록과 증언, 결성에 참여했던 인사들의 움직임, 1909년 초 신민회의 존재를 파악했던 일본 헌병대의 보고 등을 종합할 때 신민회는 1908년 초에 결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안창호는 1907년 2월 귀국 때 신민회 취지서와 통용장정을 갖고 왔고, 양기탁 등을 만나서 조직 가능성을 타진했다. 그런데도 신민회 결성에 1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것은 국내 민족운동가들과의 정치의식 차이 때문이었다. 신민회는 한국의 낙후된 정치·사회 현실을 비판하고 유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들이 지향한 ‘새 국가’ ‘신한국’ ‘유신된 자유문명국’은 황제가 전권을 갖는 대한제국과는 달랐다. 안창호와 그의 배후에 있던 미주 한인의 공립협회는 이미 국민주권론에 가까운 주장을 펼치고 있었다. 하지만 당시 국내 민족운동가들은 대부분 군주권을 제한하려는 정도에 머물러 있었다. 안창호와 국내 민족운동가들의 간극이 좁혀진 것은 고종이 강제퇴위되고 정치력이 없는 순종이 그 자리를 계승한 뒤였다. 군주에 대한 부담이 사라지고 핵심 인사들이 서울로 모여들고 나서 신민회가 결성됐다.

개신교 교회사학자를 비롯한 일부 연구자들은 안창호가 귀국하기 전인 1906년 무렵에 상동교회를 중심으로 활동하던 민족운동가들이 먼저 신민회를 만들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들이 근거로 제시하는 자료들에 나타난 ‘상동파 신민회’의 모습은 전통적인 애국사상에 바탕을 둔 구국운동 조직으로 ‘유신’ ‘신국가 건설’을 주창한 신민회와는 크게 다르다. 이 조직은 반정부 세력의 근거지였던 상동교회가 을사조약 반대 운동의 거점이 되면서 애국적인 친정부 인사들과 연합한 결과로 만들어졌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뒤에 안창호가 주도하는 신민회에 참여했지만 이 구국운동 조직 자체를 신민회와 동일한 실체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 논문은 그동안 주로 ‘국권 회복’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 온 신민회를 ‘개혁’이라는 측면에 중점을 두면서 그 결성 시점을 밝히려고 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 기존 자료와 일부 새 자료를 보다 정밀하게 분석하고 정합적으로 파악하려고 노력했다. 그 결과 신민회는 통설처럼 1907년 4월이나 개신교 교회사학자들의 주장처럼 안창호의 귀국 이전인 1906년 무렵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1908년 초에 결성됐음을 알게 됐다. 이와 관련하여 신민회의 결성 시점이나 성격을 규명하는데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참여 세력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다. 이는 차후의 연구 과제로 삼으려고 한다.

투고일: 2023.01.05

심사일: 2023.02.22

게재확정일: 2023.03.02

참고문헌

- 대한매일신보, 황성신문, 공립신보, 대동공보, 『西友』
『통감부문서』, 국사편찬위원회, 1999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1권, 국사편찬위원회, 1986
『도산안창호전집』 2권, 도산안창호기념사업회, 2000
『한국근대사자료집성 3권: 요시찰한국인거동 3』, 국사편찬위원회, 2001
「제1회 안창호 신문조서」, 『조선사상운동조사자료』, 조선총독부재판소, 1932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정보시스템 <<https://search.i815.or.kr>> 검색)

김구 지음, 도진순 주해, 『백범일지』, 돌베개, 2003
김윤경, 「주시경선생전기」, 한글학회, 1960
김진호, 「청년학원 부활운동」, 『病中瑣錄』(미간행원고), 1948
_____, 「전덕기 목사 소전」, 『病中瑣錄』(미간행원고), 1949
_____, 「81세 회고」, 『病中瑣錄』(미간행원고), 1953
「리동휘 동무의 일생」, 『선봉』, 1935년 2월 4일
박은식 저, 김도형 역, 『한국독립운동지혈사』, 소명출판, 2008
박현환 편, 「도산 언행 拾遺: 해운대 좌담 기록」, 『속편 도산 안창호』, 삼협문화사, 1954
「우덕순 선생의 회고담」, 『안중근선생공판기』, 경향잡지사, 1946
이강, 「홍사단과 도산 안창호」, 『신태양』 1957년 11월호, 신태양사
_____, 「나의 망명생활 50년記」, 『真相』 1958년 5월호, 신문의신문사, 1958
이관직, 「友堂 李會榮 實記」, 『友堂 李會榮 略傳』, 을유문화사, 1985
이정규, 「友堂 李會榮 略傳」, 『友堂 李會榮 略傳』, 을유문화사, 1985
이은숙, 『민족운동가 아내의 수기: 西間島 始終記』, 정음사, 1975
장지연, 「海港口記」, 『張志淵全書』 8, 단국대학교 부설 동양학연구소, 1979
주요한, 『추정 이갑』, 대성문화사, 1964
_____, 「전기편」, 『증보판 안도산전서』, 홍사단출판부, 1999
韓國内部警務局 編, 『顧問警察小誌』, 1909
「朝鮮獨立運動の根源」, 『齋藤實文書』 제9권, 高麗書林, 1999

김도훈, 『박용만』, 역사공간, 2010
류시현, 『최남선평전』, 한겨레출판, 2011
박찬승,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돌베개, 2013
반병률, 『성재 이동휘 일대기』, 범우사, 1998

- 『상동교회백십일년사』, 기독교대한감리회 상동교회, 1999
- 서중석, 『신흥무관학교와 망명자들』, 역사비평사, 2001
- 윤경로, 『105인 사건과 신민회 연구』 개정증보판, 한성대학교 출판부, 2012
- 윤병석, 『李相高傳』, 일조각, 1984
- 윤춘병, 『전덕기 목사와 민족운동』, 감리교출판사, 1996
- 이기백, 『한국사신문』, 일조각, 1993
- 전택부, 『한국기독교청년회운동사』, 정음사, 1978
- 한영우, 『다시찾는 우리역사』, 경세원, 2003
- 趙景達, 『近代朝鮮の政治文化と民衆運動：日本との比較』, 有志舎, 2020
- 김도훈, 「공립협회(1905~1909)의 민족운동 연구」, 『한국민족운동사연구』 4, 한국민족운동사학회, 1989
- _____, 「안창호와 이강」, 『도산학연구』 10, 도산학회, 2004
- _____, 「춘곡 임지정 선생」, 『2000년』 285, 현대사회문화연구소, 2007
- 도면희, 「황제권 중심 국민국가체제의 수립과 좌절(1895~1904)」, 『역사와 현실』 50, 한국역사연구회, 2003
- 박만규, 「한말 안창호의 근대국민 형성론과 그 성격」, 『전남사학』 11, 전남사학회, 1997
- 박혜미, 「일본조합교회 간사 김린의 생애와 친일활동」, 『한국기독교와 역사』 51,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19
- 박환, 「구한말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간행된 민족지」, 『大東叢報』, 『한국학보』 73, 일지사, 1993
- 서영석, 「신민회 창립에 따른 상동파의 역사적 위상과 정신」, 『한국교회사학회지』 30, 한국교회사학회, 2011
- 송길섭, 「전덕기 목사와 신민회 조직 및 활동 상황」, 『한국교회사학회지』 1, 한국교회사학회, 1979
- 신세라, 「정순만의 생애와 민족운동」, 『한국근현대사연구』 25, 한국근현대사학회, 2003
- 신용하, 「신민회의 창건과 그 국권회복운동(상)」, 『한국학보』 8, 일지사, 1977
- _____, 「신민회의 독립군기지 창건 운동」, 『한국문화』 4, 서울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1983
- 안종묵, 「황성신문 발행진의 정치사회 사상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46(4), 한국언론학회, 2002
- 윤경로, 「신민회의 창립과정」, 『史叢』 30, 고려대학교 사학회, 1986
- _____, 「도산 안창호의 구국계몽운동에 관한 연구성과와 과제」, 『도산학연구』 14 · 15, 도산학회, 2015
- 이재순, 「한말 신민회에 관한 연구」, 『이대사원』 14, 이화여자대학교 사학회, 1977

- 장유승, 「19세기 지식인의 정체성 변화와 그 배경-槐庭 吳相奎의 생平和 근대문명 인식-」, 『고전문학연구』 41, 한국고전문학회, 2012
- 정승교, 「이준의 행적 및 고종 황제의 특사로 발탁된 배경」, 『백 년 후 만나는 헤이그 특사』, 태학사, 2008
- 한규무, 「신민회의 역할과 역사적 의의」, 『신민회의 창립과 역할에 관한 재조명』 학술회의 발표문, 우당이회영기념사업회 · 협성대학교, 2011
- _____, 「애산 김진호의 민족운동」, 『한국민족운동사연구』 91,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17
- 홍일교, 「우덕순(1876~1950)의 민족운동과 공판투쟁」, 『지역문화연구』 10, 세명대 지역문화연구소, 2011
- 기노시타 다카오(木下隆男), 「105인 사건과 청년학우회 연구」, 숭실대 박사학위논문, 2011
- 姜在彦, 「新民會의活動と百五人事件」, 『朝鮮の開化思想』, 岩波書店, 1980 (『한국의 개화사상』, 비봉출판사, 1981)
- Arthur L. Gardner(1979), 「The Korean Nationalist Movement and AN CH'ANG-HO. Advocate of Gradualism」, University of Hawaii Ph.D. Dissertation

Reconsideration of the Formation Time of the Shinminhoe

Lee, Seon-min

Shinminhoe[New People's Association], which was active in the late Daehan Empire, had a great influence on the Korean modern national movement. But as it was a secret society, the whole picture is wrapped in a veil. In particular there are conflicting arguments about the formation time, but no full-scale review or discussion has been conducted.

This paper pointed out that the theory of 'formed in April 1907', which is regarded as a common theory, has a very weak basis. And by closely examining the statements of Ahn Chang-ho, who led the formation of Shinminhoe, and Lee Kang, his closest aide, who watched the process, it was revealed that Shinminhoe was formed in early 1908.

The reason Shinminhoe was formed a year after Ahn Chang-ho returned home with related documents in February 1907 was the difference in political consciousness between him and the national activists in Korea. Ahn Chang-ho and the United Korean Association, the force behind him, advocated the reformation of Korea and put forward the theory of popular sovereignty, while domestic national activists aimed at restricting monarchy. As this gap was narrowed after Emperor Gojong's forced abdication in July 1907, the formation of Shinminhoe was put on track.

Regarding the assertion that the Sangdong faction which was active in Sangdong Church formed the Shinminhoe around 1906 before Ahn Chang-ho returned to Korea, this paper revealed that the nature of that organization and Shinminhoe were different. In other words, the organization created by the Sangdong faction was a national salvation movement based on traditional patriotic ideas, whereas Shinminhoe was a reform movement organization aiming at revitalizing Korean society.

Key Words : Shinminhoe, Ahn Chang-ho, Reformation, Popular Sovereignty, Sangdong faction